

상록탑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온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한 권 뿐이다. 전해지는 <시학>의 6장은 “서사시와 희극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비극에 관해서 논의해보자”며 글을 시작한다. 하나 그 끝인 26장에 달할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을 언급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시학> 2권이 존재하며, 2권에서는 희극에 대해 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시학> 2권은 언제 어디서 왜 소멸됐을까? 그 질문에 대한 상상으로 ‘장미의 이름’(1986)이라는 소설과 동명의 영화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건
편집부국장

두려워한 자들이었다. 영화의 배경은 14세기, 이미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점이다. 인간을 배제한 중세의 기독교적 가치가 몰락해가고 인간의 감정과 지성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급부상하던 때. 논리적 결함으로 무너져가던 중세의 가치는 비극 즉 엄숙함으로 간신히 권위를 지켜내고 있었다. 희극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기독교적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했다. 인간의 주체적 사고와 웃음이 결합한다면 자연스레 풍자와 비관, 비웃음이 가능해지며 이 재미있는 것들은 엄숙함보다도 훨씬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매 폐이지마라 독을 바르고, 결국엔 책을 씹어 먹으며 서고에 불까지 지르는 호르헤의 광기어린 아집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생각과 감정을 모른 채 짐승처럼 살아가던 민중은 무고한 이들이 화

형을 당하는 것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낀다. 결국 이들은 돌맹이를 집어 들었고 무고한 자에게 화형을 선고한 심판관을 응징한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해피엔딩이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 학계에서는 15세기부터 르네상스로 분류한다. 중세의 몰락을 막기 위한 교인들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영화는 그걸 반영해 약간의 상상력을 보탤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장미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참으로 간단명료하다. 썩고 썩은 시대는 현상을 유지코자 하는 기득권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끝나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온다는 것. 때로는 그 변화가 지나치게 거시적이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변화하고 있기는 하다는 것. 그러나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록탑을 쓰는 2018년 10월5일,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5년형이 선고됐다. 최중범 사건으로 영원히 외면당할 것만 같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다. 성에 차지는 않는다만 세상이 조금이나마 변하나 싶어 마음이 편안한 밤이다.

학생 칼럼

나 돌보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은 건강한가? 이 질문들은 요즘 내가 자신에게 수시로 묻는 말이다.



백지현
사학과·18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 내내, 그리고 대학 합격 소식을 통보받은 후에 내가 바라던 대학 생활은 하고 싶은 것에 모두 도전하며 사는 것이었다. 교환학생, 동아리, 봉사, 교내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 학술대회…….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하니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업 시간표와 겹치는 일은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도 벌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신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마음먹었던 대로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차근차근 하며 나를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신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의 열정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한 어느 날, 나는 쉬어달라는 몸과 마음의 요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잘 쉬어

그래서 나는 나를 더 잘 돌보기로 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적어놓은 일들을 다시 살펴보니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느꼈다. 어찌 되었든 ‘일’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나도 모르게 사회 분위기에 이끌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일상이 나에게 가혹했는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 머리가 시키는 대로만 살고 몸의 아우성은 듣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기분, 나의 몸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할 일을 하겠다고 전전긍긍한 것 같아 나에게 미안했다.

어떤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게 시간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민의 결론이다. 너무 작아서 안 보였던 것들, 너무 무심했던 것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보려고 한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며 동시에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론광장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을까?’

대학에 들어온 이후 많이 방황했다. 물론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진로의 불투명함에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 잡은 이도 있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조금은 이르게 진로를 정한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에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당시 내 고민은 직업 소득 같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예술 중학교와 예술 고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며 조금은 두각을 보였는데 재주만 믿으며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고, 나의 민낯과 마주한 나는 수

치심과 좌절감을 맛보며 방황했다. 이것이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 모습이였다. 3학년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나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져 있음을 느낀다. 본래 나의 전공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내게 잘 맞는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달라진 데는 내가 전공 분야에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 전공 교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던 내게 선생님은 “다윈 학생, 정말 좋아하는 것 맞아요? 좋아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밥 먹을 때에도 그 생각만 나와 해요.”라고 말씀하셨다. 뒤뚱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글 쓰는 게 좋다

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나였는데, 6년 넘도록 하던 전공을 미련 없이 떨치고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수 있을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던 것이다.

이어 선생님은 내게 “지금 학생이 이론을 하던 시간만큼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그만큼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셨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내가 현재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놓고 뛰어들 만큼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불투명한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한다. 물론 광장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더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에 관한 사유 또한 필요하다.

이다원(한국음악·16)

사설

선별적 통제로 외부인 출입 문제 해결해야

‘인사이드 이화’ 1차 협의체(협의체)에서 이번 달 말 학생회실 및 사위실 등에 카드리더기를 총 53대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카드리더기는 학생증을 찍어야만 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현재 ECC 2번 출구에서 상시 운영 중이다. 나머지 건물에서는 오후11시 이후부터 운영된다. 이 리더기들은 전부 건물 입구 위주로 설치돼 있다.

카드리더기 설치하는 협의체에서 도출해 낸 첫 실질적 대응책으로 학교 측에서 공문을 발송해 확정 지었다.

그러나 결정된 설치 장소는 외부인의 구분별한 출입을 막는다는 본래의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제기된 외부인 문제들은 사위실, 학생회실 등 건물 깊숙한 곳의 침입이 아니라 수업 공간 침해와 외부인 출입 금지 건물 침입 등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이화·포스코관 복도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가 대표적 예시다. 국소적 장소에 한해서만 리더기를 설치하는 지금의 협의 내용은 외부인 출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외부인에 대해서 면학 분위기에 방해되지 출입하지 말아 달라는, 다소 개인의 양심에 기대있는 통제를 해왔다. 외부인이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와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잦았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써져있는 안내문도 소용이 없다.

이에 학생 측은 모든 건물 입구에 외

부인을 속아낼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경비원을 추가 고용하자고 한 바 있다. 학교 측은 예전처럼 정문과 후문 등 교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외부인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외국 대학교들의 경우 외부인에게 학교를 선별적으로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은 곳은 철저히 통제한다. 영국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의 경우 연구실 등 일부 장소는 외부인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 중이다.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의 경우도 도서관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자료를 보관해 둔 특별자료실의 경우 사전 신청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개할 부분과 통제할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가게 되면 학생들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쉬거나 할 경우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간 선택을 통해 학생들도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대학교들은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면적 통제는 인력 총원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드리더기 추가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외부인 출입에 대해 허용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특정 장소만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금주의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신형철 산문

- 신형철 지음, 서울: 한겨레출판, 2018.

이 책에서 저자는 “타인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이 자신으로 하여금 슬픔 공부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절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비탄이 비평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칭찬하는 비평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저자는 정확한 분석을 거친 섬세하고 사려 깊은 문장으로 자신의 신념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책은 문학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노래,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정확히 읽고, 듣고, 보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읽으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책 속 구절로 이 글을 마감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811.4 신945시



0905~1004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서울대 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투판즈	2012-
2	어쿠스틱라이프	난다	에니박스	2011-
3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전문개정판]	이원복	김영사	2012-2013
4	콜레라 시대의 사랑	Garc aM rquez, Gabriel	민음사	2004
5	순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1994